

금불련 14개 불자회 합동법회

감원바람 닮고 초발심 새겨 연합회 상설법당 건립 추진

금음계 구조조정의 여파로 행원불자들의 신행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 불자회들이 모여 행원불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일깨우는 합동법회를 열었다.

금음단불자연합회(운영위원장 김윤하·수협, 이하 금음단연합회)는 1일 한국은행 별관 8층 대강당에서 제26회 합동법회를 열고, IMF 이후 시작된 감원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음계 신행단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합동법회에 참석한 2백여 행원불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하고, "하루를 살아가도 수행적인 삶을 견지한다면 일상에서도 한 가지 발원을 세워 꼭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

심을 다졌다. 금음단연합회는, 85년 한국은행 불교회 창립을 시작으로 연이어 결성된 한일, 제일, 중소기업 등 16개 시중은행 불자회들이 모여 92년 7월에 결성하고 이를 운영할 상임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행원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합동법회, 연동행사, 용맹정진,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행원 불자들은 이 과정에서 방문한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게 정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아, 사찰과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에 적잖게 공헌했다.

현재 한국은행, 서울은행, 조흥은



◇금음단불자연합회는 92년부터 매년 두 차례 합동법회를 병행하며 회원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있다.

행, 한빛은행, 수협,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불자회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3%의 직원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실시된 한국은행의 경우,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정기법회와 월요일 정기법회 등을 마련, 회원들의 신심배양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이는 40%까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다른 시중은

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행 불자회 하용이 총무는 "법회나 봉사활동 외에도 2002년에는 금음단연합회 상설 법당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 시내 불교회관이나 사찰에 행원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선방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연꽃담은 공무원 불자 발원”

과천청사 수계법회 연 송도근 건교부 불자회장

“불자는 연꽃과 같아야 합니다. 비록 진흙에 뿌리를 내린 연꽃이지만, 그 자태가 얼마나 곱습니까. 과천 정부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회들이 합동수계법회를 병행한 것은 연꽃과 같은 불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11월 17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과천 정부청사 불자회 연합수계법회를 주최한 건설교통부 불자회 송도근 회장(교통관리국장·사진, 그는 “신행이란 좋은 인연을 맺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소멸해 가는 것”이라며 “직장 도반들과 수계법회를 연 것은, 일터에서도 오계를 지키며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서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계사로 참석한 정일스님(보광사 조실)에게서 현광(炫光)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과천 정부청사에는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불자회가 있으며, 각 불자회마다 30~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 대부분이 업무나 개인 및 집안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불자회의 신행활동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송 회장은 이번 연합법회를 계기로 5개 불자회 간의 유대를 강화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신행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송 회장은 11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불자회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12월 중 5개 불자회 연합법회를 병행하고,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편낸 <불교입문>을 구입해 겨울동안 함께 공부하자는 공의를 이끌어 냈다. 송 회장은 이밖에 군포 법해사 주지 연경스님을 초청, <천수경>을 강독하는 등 정부청사 내 불자들이 경전을 배우는 시간도 만들 계획이다.

“우리가 다음 생애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는 이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송 회장은 “과천 정



부청사 내 불자들 중에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신행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사찰 예절이나 교리를 잘 모른다”며 “업무에 시달리는 회원들이지만, 공부하는 불자가 되도록 잘 이끌겠다.

송 회장은 70년대부터 해인사, 보광사, 칠불사, 청계사 등 국립공원 내 사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공원법과 같은 관계법 개정에도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독실한 불자다.

신도시의 종교부지는 100~150평으로 한정돼 있어 사찰을 세우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다. 송 회장은 이를 개선, 5백여 평 규모의 신도시 첫 사찰인 법해사(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가 세워지는 데 한 몫을 했다.

오종욱 기자

지구촌 난민돕는 천불동 불자 음식기부 ‘헝거사이트’와 제휴 보살행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승 김용태, 이하 천불동)가 지구촌 난민을 돕는 네티즌 운동에 동참한다. 천불동은 최근 세계적인 기부 사이트인 ‘헝거사이트(thehungersite.com)’와 연계해 ‘돈 안들고 좋은 일 하기’라는 신규 코너를 마련했다.

이 코너는 세계 유명 기업들과 링크돼 있는데, 불자 네티즌들이 이곳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구매 광고를 보게 되고, 이때 광고료 명목으로 ‘쌀 한 톨’을 지원받아 가아 난민들에게 기부한다.

99년 개설된 헝거사이트는 온(On) 라인상에서 기부받아 가아 난민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는 사이트로 19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3천과 9천500의 음식기부 실적을 올리는 등 가장 대표적인 기부 사이트이다.

오종욱 기자

모레원서 3백명 수계 공불련 9일 구미서 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감사원 사무총장)는 9일 오전 10시 30분 신라불교 초전지로 알려진 경북 구미 아도모레원에서 제1회 합동수계법회를 병행한다.

연합회 창립 이후 합동으로 열리는 수계법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불자로서 불명(佛名)을 수지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서원이 모여 마련됐다. 서울 대각사 조실 도문스님이 계사로 참석하는 이날 수계법회에는 3백여 공무원불자

들이 참석해 불명을 받고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안후부 사무국장은 “단체 규모가 적을 때는 회원들이 수계를 받을 기회가 적어 법명과 오계수지를 하지 못한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자로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새롭게 발심하는 불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가 희망자는 연합회 홈페이지(gongbu.or.kr)에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일 오전 7시 서초 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019290-6141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마야문화원 겨울프로그램=서울 인사동 마야 문화원은 8일부터 3개월간 제4기 겨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강좌에는 청견스님의 절을 가차게 잘하는 법, 아합경 강의, 여성 및 임신부 요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실시된다. 02722-1050

▲낙동인의 밤=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1일 오후 5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위안행사 일환으로 ‘낙동인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후원 및 자

원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과 감사패 증정, 레크리에이션 등이 마련된다. 0511271-0560

▲박경일 교수 특강=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5일 오후 1시 봉사활동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국대 박경일 교수를 초청, ‘자원봉사 활동 신나게 하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02265-9471

모집

▲소년소녀합창무용단원=대한불교 조계종 불교교육연구원은 소년소녀합창무용단 제9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 이하이며, 16일 오후 3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02725-7527

▲주간보호실 이용 희망자=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 및 중풍노인 주간보호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929-7950

▲유아센터 신입원아=강남 능인유아센터는 24일까지 2002년 신입원아를 모집한다. 능인유아센터는 능인선원이 운영하는 유아교육시설로 인근 지역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5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577-5800

▲병원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 불자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부서는 신생아실, 옷집기, 품안들기, 아동안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봉사를 할 수 있다. 011317-5727

▲목욕 봉사 및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목욕봉사는 주 2회 2-3시간. 02852-0525

▲우의탁 가사보조=연꽃담을 송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노인 가정을 찾아가 말벗, 생활상담, 가사지원 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우리 모임에선

춘천시 도반회 사이트 개설



춘천시청불자회 도반회는 최근 인터넷상에 홈페이지(doban.chuncheon.go.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회원소개’ ‘사찰탐방’ ‘사진모음’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있으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메뉴 개편을 통해 정식 개통한다. 한편 도반회는 11월 27일 춘천 칠송동 부흥사에서 정기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30여 회원들은 주지

법선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철불협 대표자회의

철도청불교협의회는 11월 27일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송년회 및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2001년 활동평가, 2002년 활동계획수립, 회칙개정, 기타 철불협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불동 대둔사서 수련회

하이텔불교동호회는 17일~18일 까지 전남 해남 대둔사에서 제1회 전국 가을 정기수련회를 개최했다. 하불동 전라지역 백제모임에서 주관한 이번 수련회는 유인자 대표시승 등 30여명이 참가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운불련 현판식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는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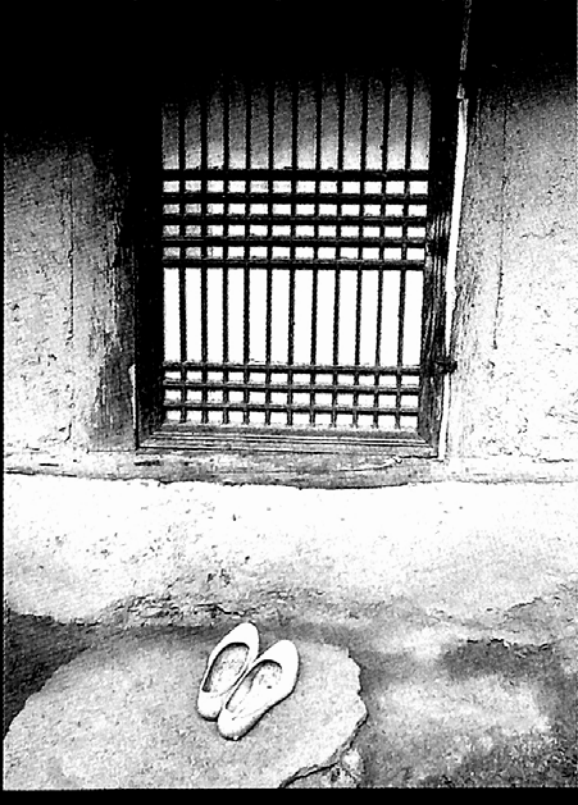
18일 대구운불련 법당 해침원에서 ‘운불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도법사 설호스님(대구 대승원, 관음사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해 전국 25개 지회 임원, 대구 지역 신행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인터넷 상담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10:00~17:00
02)596-7231

■평일상담 매주 토요일 10:00~17:00
02)722-4162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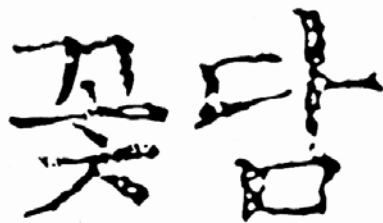


스님은 얼핏 수줍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훌륭한 인품과 고된 수행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순수한 감동을 읽는 이에게 선사한다. —조성일보

스님은 무척이나 솔직해서, 가끔씩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이야기의 경우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스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읽다 보면 이분이 스님이란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pssmm(YES24 독자서명)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글 속에 묻어나 있는 진솔함 때문이었다. 갖가지 소문과 사람에겐 치일 대로 치인 내게 그 책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빛명음(모닝365 독자서명)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해인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각박한 세상살이, 하루하루 등 떠밀려 가듯 숨 가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법을 알려 줍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

이목재 외 지음 | 신국판 | 269쪽 | 값 7,000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이 마음을 비춰 주는 책.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유종호 외 지음 | 신국판 | 251쪽 | 값 6,000원

느림과 여유로 돌아보는 나와 세상. 나를 바로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대담들.